

1. 마리아와 베드로: 10대(그러나 제 3문화 자녀나 청소년은 아니었다) Mary & Peter: Teenagers(but neither TCKs nor Adolescents)

주일학교를 방문한 한 교사가 “예수는 10대였지만, 청소년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즉시 나[코테스키 박사]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0대와 청소년이 같은 말이 아니었나?” 그 당시 큰 아이가 13세가 되었을 때여서 그 말이 담고 있던 진리가 나로 하여금 큰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두 동생들이 커서 10대가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10대였지만, 제3문화 자녀(TCKs)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었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마리아(Mary)

신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이들은 10대였지만, 그 누구도 청소년은 아니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마리아는 종종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준비를 할 때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마르다는 마리아를 꾸짖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다 (눅10장). 또 한번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으로 상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기도 했다 (요11장). 그 때 마리아는 10대였지만, 청소년도 제3문화 자녀도 아니었다.

베드로(Peter)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베드로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약 85마일 떨어진 갈릴리에서 살았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은 어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잠깐 띄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므로 주저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 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물고기들을 배에 올릴 수 있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눅5장). 그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들 중에 리더가 되었다. 베드로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10대였지만, 청소년도 제3문화 자녀도 아니었다.

마리아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마리아는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와 베드로가 살던 갈릴리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었지만, 베드로나 마리아처럼 사마리아 양쪽 편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베다니와 갈릴리를 오갈 때, 하룻길이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피하여 왕래하였다. 마리아와 베드로는 이런 문화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번도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사실 그들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니기를 꺼려했었다. 그들은 제3문화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다.

10대는 어른이었다(Teenagers were adults)

‘10대’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10대 연령에 있는 남녀’이다. 물론 (영어권에서) 문자적으로 10대란 13-19세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누구든지 13-19세 연령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10대라고 불리운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으므로 당연히 그도 13세, 14세 등의 10대의 삶을 사셨다. 그러나 청소년기라는 하나의 ‘성장단계’ 즉 어린이가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의 단계가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번도 청소년인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이 끝나자 예수님이 곧바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래 열거한 항목들이 보여주고 있다.

- **통과의례**

어린이는 성인식이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성인이 되었다. 유대 백과사전에서는 ‘바 미츠바(bar mitzvah)’를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밧 미츠바’[bat mitzvah]는 ‘율법의 딸’로 정의된다). 13세에서 하루가 지나면 (소녀의 경우 12세에서 하루가 지나면) 그 소년은 어른이 되며,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성숙한 남성으로 인정받기에 그가 한 맹세는 효력이 있게 된다. 실제로 성인식 통과의례는 훨씬 나중에 가서야 만들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소년들이 이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결혼할 수 있었고, 종교의식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사고팔 수가 있었다.

- **책임감**

유대인의 법은 남성으로서의 책임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12세). 미드라시 문헌(Midrashic literature)에는 이 나이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기가 됨을 언급하는 참고 내용들이 많이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배격했다는 점이다. 야곱과 에서도 이 나이 때에 서로 자기의 길로 갔다(한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러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우상숭배의 길로 간 것이다). 탈무드 문헌에 보면, 제 2차 성전 재건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12세나 13세에 행해지던 첫 번째 금식을 끝마친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관습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13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 **종교적인 참여**

토라(율법 책)를 읽는 것은 소년 시기를 지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상징 행위이다. 유대 연령으로 13세가 된 성인 남자는 처음으로 토라를 읽는다. 이것이 남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적 행위이다. 소년의 아버지가 토라를 읽을 때 그는 “이 소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신 이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축도를 낭송한다. 드디어 이제 소년은 성년이 된 것이다.

- **성경문구**

신구약 시대를 총망라해보면, 많은 이들이 어린이로부터 성인이 되었다. 출애굽기 2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그려진 모세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읽어보면 한 문장에서는 모세가 어린이로 언급되었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장성한 자로 언급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중간 성장 과정의 단계인 청소년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세 번이나 아이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될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라고 했다. 여기서도 역시 청소년기라는 중간 성장단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 **여성을 위한 결혼**

어른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한가지 확실한 표시는 법적 결혼 최소 연령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이 연령 때에 누구나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인용문에서 보여 주듯이 탈무드에서는 이 시기에 결혼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가르침대로: 당신의 딸을 욕되게 함으로 창녀가 되게하지 말라: 알 아키바 (R. Akiba)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춘기가 지난 딸의 결혼을 미루는 경우를 가리킨다”(각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 딸이 이미 성숙하였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 카하나(R. Kahana)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불쌍한 이들

은, 교묘하게 악한 자들과 혼기가 찬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자들이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화평하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남자에 대해 말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제 자신 같이 하며, 자신보다 아내를 더 존중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숙해질 무렵에 결혼시키는 자이다”(산헤드린 76a-76b).

- **남성을 위한 결혼**

탈무드는 또한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다. “알 후나(R. Huna)도 위의 내용과 부합된 견해를 피력하면서 말한다. 20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죄 안에’란 말은—정말로 계속 죄를 짓는다고 보다는—말하자면 하루 종일 죄된 생각에 빠져 산다는 것이다.” “20세가 되었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남자는 ‘그의 뼈가 폭발될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알 히스다(R. Hisda)는 말하기를: 내가 내 동기들의 상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16세에 결혼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14세에 결혼했었다면, 나는 사탄을 향해서 ‘나는 네 눈에 화살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키두신 19b-30a).

- **수천 년간의 다른 문화**

1, 2세기 전까지만 해도 법률상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성인의 표증)은 여성은 12세, 남성은 13-14세였다. 서구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법, 영국법, 초기 미국법에서 결혼 가능 최소 연령대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다 결혼한 것은 아니고 다만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켄터키 개척 시대에는 “때론 16세 소년과 14세의 소녀의 결혼식이 있는 날에는 온 마을 전체에 즐거운 축제가 행해졌다.” “북 캐롤라이나주 소녀들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 때문에 27세 된 할머니들을 종종 찾아 볼 수 있었다.”

- **직업**

사람들은 이 나이에 결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족의 생계 부양을 책임질 것을 기대했다. 1823년 매사추세츠 복지 법안은 기록하기를 “이 복지 개정 안에는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12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이 가족부양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15세였을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1850년에 내가 내 인생 처음으로 어떻게 일을 시작하였는가는 다음과 같다. 일주일에 2달러를 받고 어두운 지하 저장고에서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수증기 엔진을 가동하는 일로 시작해서…후에는 신문지와 펜과 연필들과 햇빛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낙원과 같은, 즉 천국으로 옮겨간 것과 같았다.” 물론 카네기가 햇빛을 보며 천국과 같은 상태에서 일하게 된 것은 어린 10대에 수년간 성인의 일을 감당한 것을 바탕으로 한 승진의 결과였다.

- **용어 정의**

어른(adult)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아둘투스(adultus)’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아돌스케레(adolescere)의 과거 분사이며, ad(...으로)와 olescere(성장)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다. 문자적으로는 ‘장성한 자’를 의미한다. 사전에서는 adult를 ‘크기나 힘이 다 자란 사람’으로 정의하고, 법률적으로는 ‘법적으로 성인 연령대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몇 천년동안 인류는 12-14세에 어른이 되었거나, 적어도 급성장할 시기에는 이미 장성한 크기의 사람이 되었다. 당연히 그들은 결혼할 것으로 여겨졌고,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는 다른 어른들과 같은 성인으로 대우받았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들이나 그 자녀들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선교사들이나 그 자녀들은 실제로 타문화권 사람들 가운데 살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 문화의 사고방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른 문화를 보고 관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군인, 외교관이나 사업가들은 선교사 가족들만큼 그 나라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세계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10대를 어른으로 대우해 주고 있다. 서양 문화의 ‘청소년기’ 개념을 도입한 일부 문화권에서만 10대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듯 ‘청소년기’라는 서구 개념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 갈수록, 10대들이 더 이상 어른으로 행동 하도록 바랄 수 없고, 10대들도 어른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마리아와 베드로도 분명히 10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성인이었지 청소년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평생을 한 문화권 내에서 살았으므로 제3문화 자녀도 아니었다.

청소년기를 맞은 제3문화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인답게 행동하라. 당신은 성인이다. 수 천 년동안 많은 문화권에서는 당신 또래의 사람들이 성인 역할을 해왔다.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책임감있는 성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부모님들이 이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당신을 성인으로 대해 주도록 부모님께 정중히 요청드려야 한다. 그와 더불어 좀 더 많은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라. 그런 후에 당신이 그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 드려라.

주일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성인이 된 다윗의 삶 속엔 있어야 할 자신감이 없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부어 왕을 세우려 할 때, 이새는 (그 가족 중 가장 어린) 다윗을 사무엘이 고려할 대상으로 데려오지도 않았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울 왕은 말하기를, “너는 아직 어린 아이라...”고 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 거인은 다윗을 훑어보며 “단지 어린 소년이라고...” 하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나 다윗은 어른처럼 자기가 맡은 양들을 돌보았고,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죽이기도 했었다. 그는 성인이었고, 그는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다. (삼상16-17장)

당신이 만일 이런 기회를 저버리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했다면, 일단 몇 주 기다려보고 부모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라. 만일 당신이 어느 특정 상황에 당면했을 때 확실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도록 하라.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결코 상처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종종 실패와 아픔으로부터 당신을 구해 줄 것이다.

물론 당신의 행동들은 당신이 성장한 본국 문화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들은 청소년기를 그들 문화권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다른 청소년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10대들을 그저 대도시의 청소년처럼 대할 것이고, 시골에서는 성인으로 대우할 것이다. 이럴 경우 시골 집에서는 성인으로 느끼지만 고국에 돌아오면 어린아이같이 느껴지는 등 더 갈등을 느낄 지도 모른다.

근대 서구 문화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원시’ 문화권의 여러가지 통과의례들을 일종의 사춘기 (puberty) 의식으로 볼지 모른다. 물론 이런 의례들은 성인이 될 무렵에 행해진다. 그러나 이런 의례들이 바로 성인식인 것이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사춘기가 일종의 성인이 되는 표식이다. 그 의식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한 성인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저 잠시 성인의 대우를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임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문화권에서 산다면 이에 대해 당신의 마음가짐을 잘 견제해야 할 것이다.

† 이 브로서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